대전주보

2025-2028 사목교서 표어 | 성사 은총 안에서 형제 공동체인 교회
복음을 전하며 피조물을 돌보는 교회

발행 김종수(제2823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은포리공소(대천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4년

주님 공현 대축일 | 2025년 1월 5일(다해)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제2독서 에페 3,2.3ㄴ.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고등부 예비신학생 캠프
2025년 1월 8일(수)-10일(금)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예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향기

희망의 순례자가 되자!

김대건 베드로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

2025년 첫 주일인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을 맞아 성년의 희년을 보내는 이 땅의 모든 하느님 백성은 희망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가 되자. 그리하여 "성사 은총 안에서 형제 공동체인 교회"와 "복음을 전하며 피조물을 돌보는 교회"의 모습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 이를 위해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박사들의 모범을 본받아야겠다. 이로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받은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으니, 이는 가난하고 연약한 아기가 메시아 왕이요, 세상의 주님이란 뜻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각자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또한 지쳤을 때는 뒤에서, 즐거울 때는 앞에서, 위로할 때는 옆에서 함께하시는 주님과 밝고 희망찬 나날을 보내자. 그러려면 자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비추시는 그분의 별을 발견하고 경배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자신의 계획들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느님께서 당신 친히 놀라운 섭리로 어떻게 이를 완성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말농장이나 캠핑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때만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일 것이다. 그러니 새해에는 여유롭게 지내며 일상의 사소함에 감사하는 생활을 만들어가자.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추억이 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헤로데 임금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된 모든 신앙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 그러니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라는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자. 한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보편성이 바로 "주님 공현" 사건의 핵심이며,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벗어나 모든 민족에게 펼쳐지게 되었음을 제2독서는 알려준다. 그리고 제1독서는 어둠의 땅에 비추는 빛처럼 떠오르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곧 기도 안에서 인생의 나침반을 자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땅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을 키우고 지혜도 터득하게 된다. 그러니 새해의 계획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주 별을 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만들어가자. 특히 올 한 해 동안 가슴에 품으며 새기고 싶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가훈이나 인생의 좌우명처럼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바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는 말처럼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할 것이다.

바울이 (1103)
유판식 토마스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오늘의 강론」 1월 6일(월)~11일(토) 오전 6시 50분 사회복지국 차장 김솔 신부 편

대전교구 관련 인류복음화서 자료 소개 11

1949~1950년 대구대목구 선교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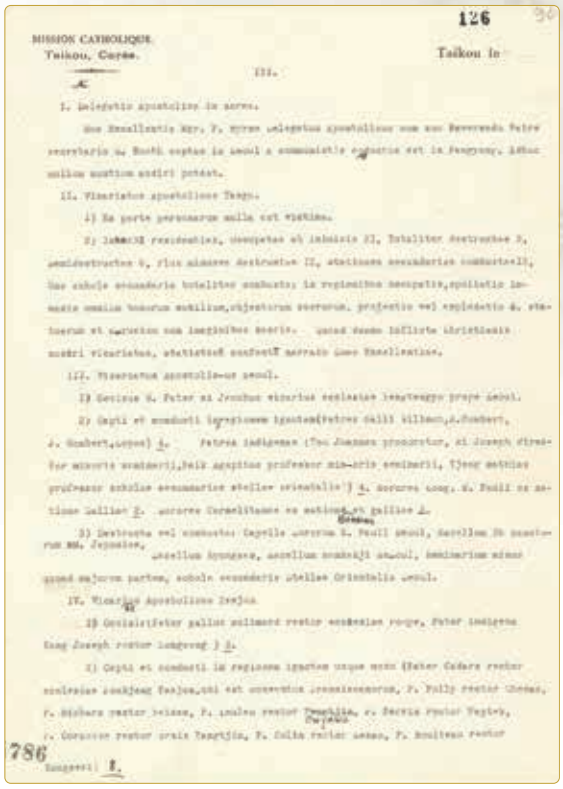
대구대목구장 최덕홍 요한 주교는 주한 교황사절 번 주교가 한국전쟁 중에 실종된 상태에서 대구대목구의 선교 통계와 연례보고서와 함께 한국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서한과 문서를 포교성성에 전달하기 위해 주일 교황대사 막시밀리안 폰 퍼스텐버그 대주교를 거쳐 보냈다. 그는 이 문서를 1950년 11월 8일 자로 작성하였다.

이 문서 안에 대전에 대한 언급도 들어있는데, 한국전쟁의 인명 피해를 담고 있다.

"IV. 대전대목구

살해당한 이들: 2명(금사리 본당 주임 몰리마르 프랑스 신부, 홍성 본당 주임 강만수 요셉 신부)

체포되어 끌려간 이들: 8명(목동 준본당 임시 주임 카다르 신부, 천안 본당 주임 폴리 신부, 예산 본당 주임 리샤르 신부, 온양 본당 주임 를뢰 신부, 합덕 본당 주임 페랭 신부, 당진 본당 주임 코르데스 신부, 서산 본당 주임 콜랭 신부, 공세리 본당 주임 뷜토 신부)"


126

MISSION CATHOLIQUE
Taikou, Corée.

Taikou le

786

인류복음화성 역사문서고, Nuova Seria, vol. 1786(1950–1952),rubr. 36–1, prot. 4786/50, f. 126r.

보통 연례보고서의 작성 마감 시기가 6월이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6월이 지나고 나서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대구대목구장 최 요한 주교는 대전지목구에 대한 소식을 1950년 11월 전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이 6월 25일에 발발하고 나서, 7월 중에 대전과 충청남도 지역이 북한군에게 점령되었고, 사목지를 떠나지 않고 목자로서 양들과 함께 본당을 지킨 사제들은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끌려가거나 살해당하였다.

● **권영명 안드레아 신부** 내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공동체로 스며드는 생태 사도들

1. 쓰레기 처리장에서 생태적 회개를! – 박윤미 헬레나(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다. 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배출을 할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릴지 꼼꼼하게 따진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내보내고 나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고 잊어버린다.

집 밖으로 나간 쓰레기는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처리된다. 대전 금고동 자원순환시설에는 비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는 12만평 규모의 매립장, 가연성 쓰레기와 슬러지를 태워 열에너지를 만드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음식물류 폐기물과 음폐수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가 있다. 쓰레기가 메탄가스, 열에너지, 바이오가스가 된다는 것은 반갑지만 그 또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해진다. 무엇보다도 눈 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쓰레기의 양에 놀라게 된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2022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1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평균 0.87kg이다.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연간 208kg에 이른다. "바로 저였군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온다.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은 어느 날 쓰레기가 된다. 소비를 줄이면 쓰레기도 줄어든다. 이제부터라도 절제와 검소한 생활로 공동의 집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24. 사제서품 예식에 대해서 (2)

지난주에 이어 사제서품 예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 후보자 소개 및 청원 수락 – 강론 – 뽑힌 이들의 서약식 – 성인호칭기도 – 안수 및 서품 청원기도 – 제의 착의 – 손의 도유, 빵과 포도주 수여 – 평화의 인사

두 번째는 강론 이후 "뽑힌 이들의 서약식"입니다. 이 예식은 뽑힌 이들이 모두 하느님 앞에 나와 복음 선포와 성체성사 거행,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대해 자의적으로 따를 것임을 스스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구장 주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함으로써 끊임없이 교회와 일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는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 사제로서 주님과 교회에 끊임없이 일치되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사를 매 순간 거룩하게 봉헌하겠다는 다짐을 서약하게 됩니다. 이 서약식을 통해 본격적인 서품 예식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성인호칭기도"입니다. 사제서품 후보자들은 제단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모든 성인의 전구를 구하며 오롯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낸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이때, 서품 후보자들을 제외한 이들은 무릎을 꿇거나 서서 성인호칭기도를 함께함으로써 탄원기도를 봉헌합니다.

네 번째는 "안수 및 서품 청원기도"입니다. 서품 예식 중 "안수와 서품기도"는 서품 예식의 본질적인 예식입니다. 서품 예식 112항에서는 이 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후보자는 주교의 안수와 서품기도로 사제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주교와 함께 신부들은 후보자를 사제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지로 안수한다." 이때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길 청하며, "Veni Creator"를 봉헌합니다. 부제서품 때는 주교만 안수를 하지만, 사제서품 때는 주교와 모든 사제단이 함께 안수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의 착의"입니다. 이제 부제로서 착용했던 대각선의 영대를 바로 메고, 제의를 입음으로써 성사를 집전할 사제로서의 직무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여섯 번째로, "손의 도유, 빵과 포도주 수여"와 "평화의 인사"입니다. 교구장 주교는 그리스도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며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게 될 새 사제들의 손바닥에 축성 성유를 바름으로써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빵과 포도주 수여의 상징으로 "성작"을 전달함으로써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인사를 통해 온전히 교회와의 일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로써, 서품 예식은 끝나고 성찬 전례부터 미사가 이어집니다.

서품기도 중 한 구절은 우리가 새 사제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일러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하느님의 이 종들에게 사제의 품위를 주시고 이 종들의 마음 속에 거룩함의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새 사제의 탄생은 우리가 더욱 성사와 일치될 수 있도록 돕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기에, 새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나아가 모든 신부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천주교 대전교구 사제서품식

일시 2025년 1월 14일(화) 10시 30분
장소 주교좌 대흥동성당
집전 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

- **비표 지참** 시 입장 가능(우편을 통해 각 수품자 본당으로 발송)
- **가톨릭 문화회관 아트홀**에서 영상을 통하여 미사에 참석하고 영성체하실 수 있습니다.
- **미사 영상 중계**
  천주교 대전교구 홈페이지(https://www.djcatholic.or.kr)
  천주교 대전교구 유튜브 채널

- 사제수품 대상자 -

이 름	세례명	본 당
김동윤	바르톨로메오	문화동
김한구	프란치스코	탄방동
이교희	도미니코	온양
이대현	대건안드레아	온양풍기동
황범기	이냐시오	천안쌍용동
박병헌	마르티노	둔산동

교구알림

지방리 공동사제관 생활관 담당 채용 공고
- 근무지 : 충남 금산군 진산면 실학로 257-8
- 자격 : 영세 3년 이상
- 서류 :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이력서
- 접수 : 1.10(금)까지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
  천주교대전교구청 2층 관리국
- 문의 : (044)270-3027~3031

전담사목

젊은이 성령기도회
- 대상 : 교구 모든 젊은이
- 때 : 1.7(화) 20:00
- 곳 : 새얼센터 (대전 유성구 지족로 306)
- 문의 : 카톡플친[아자리아], (042)824-6773

본 당

윤성균 가브리엘 사제 은퇴미사
- 때 : 1.11(토) 10:00
- 곳 : 용전동성당
- 많은 분들의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합덕성당 사무장 채용 공고
- 자격 : 영세한 지 3년 이상인 신자, 사무행정 및 전산 회계업무처리 가능, 운전 가능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운전면허증, 기타자격증 사본(제출서류는 반환안됨)
- 서류 접수 : 1.12(주일) 18:00까지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통지)
-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gj-wjdtnr@nate.com)
- 문의 : 합덕성당 사무실 (041)363-1061
- 주소 : (우)31812 충남 당진시 합덕읍 성당2길 16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지구 합창단 ADSUM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금 19:30
- 곳 : 하품센터(천안 서북구 월봉5길 23)
- 문의 : 010-3526-0759
- 담당사제 : 김은석 요셉

대천 해수욕장 성당 & 연수원 채용공고
- 대상 : 관리사 1명 (65세 이하 지원 가능)
- 업무 : 연수원 객실 청소 및 시설 정비
- 제출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 접수 :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 제출
- 문의 : (041)934-7758, 팩스 (041)394-7736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원죄 없으신 성모기사회 미사
- 때 : 매월 둘째주 토 09:20 칠락묵주기도
  10:30 미사
- 곳 :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6408-6562

오기선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곳 : 1.9(목) 15:00, 주교좌 대흥동성당
- 미사집전 : 정우석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4116-0140

천주교 대전교구 합창단 단원모집
- 연습 : 매주 월 19:30, 원신흥동성당
- 문의 : 010-9656-2295 단장 : 서옥경 가타리
- 담당사제 : 전원석 베드로

대전 가톨릭 다도회 회원 모집
- 초급 반 : 여성, 남성(선비 반)
- 대전 지역, 세종 지역 : 주간(월, 화 10:00),
  야간(월 18:00)
- 시간, 요일 변동 가능
- 문의 : 010-5760-3696, 010-8427-5739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대전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 : 미사 반주자
- 봉사시간 : 매주 금요일 11시
- 봉사장소 : 병원 상지관 5층 경당
- 자격 : 만 20세~ 65세 가톨릭 신자
- 문의 : 원목실 (042)220-9417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김재덕 신부의 1박2일 말씀피정
- 때 : 1.25(토)~26(주일)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피정비 : 11만원
- 문의 : 010-8848-5690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줌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서비스 : 상담, 교육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사업 등
- 주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2층
- 문의 : (042)622-7018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라피, 이콘
- 전례초조각(초·중·고급) 성가, 영성심리상담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추가 모집
- 원서접수 : 12.30(월)~2025.1.8(수) 17:00
- 방문 및 우편접수
- 모집전공 :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
  / 특수대학원 사회복지학, 카리타스학
- 특전 : 직장인, 수도자 등 장학 혜택 다수
- 문의 : (043)270-0131

54기 내면아이치유워크샵
-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보는 마음여행
- 대상 : 관계소통 회복,
  내면의 성장을 원하시는 분
- 때 : 2.7(금)~9(주일) (시작 10:30/마침 18:00)
- 신청 : (042)862-9780, 010-5392-6353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 대상 :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 내용 :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 원서 : 2.14(금)까지
- 문의 :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U&I(학습진로검사 및 해석 상담)
- 학습진로검사를 통한 심리적 문제와 성격적 특징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학습방법 제시
- 문의 : (042)862-9780, 010-5392-6353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 1만원
- 주소 :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 문의 : (02)2274-1843, 4 www.cdcc.co.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곳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120만원
- 문의 : 010-3645-9028

수도회 및 피정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성경완독 : 2.14(금)~22(토), 3.14(금)~22(토)
- 문의 :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킴벨 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1588-5678
정부청사역 2번 출구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7인 진료
T. (042)220-5500 대흥동성당 맞은편

젊은이 해외(인도네시아) 선교체험
- 때 : 6.25~7.2(7박 8일)
- 곳 : 인도네시아 메단
- 대상 : 만 18~39세(미혼 신자 남녀)
- 주최 :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수녀회
- 문의 : 010-5715-1702(젊은이 사도직)

1월 희망의 순례 특강
- 주제 : 희년의 기쁨
- 강사 :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서울교구)
- 때 : 1.18(토) 10:00~12:00
- 곳 : 마리아홀(대흥동성당) / 참가비 : 1만원
- 문의·신청 : 바오로딸서원 (042)254-3089

우리성서모임, 겨울특강
- 주제 : "친절하게 나를 돌보는 오감마음 챙김" 배우기
- 때 : 2.16(주일) 10:00~11:50
- 강사 : 최대헌(다니엘) 박사 (회복 탄력성 교육상담센터)
- 곳 : 대전 중구 대흥로 62 예수수도회 교육센터
- 특강비 : 3만원
- 문의 : 우리성서모임 010-2985-9020

예수회센터 봄학기 동영상 강좌 / 3월 개강
- 마태오의 예수 이야기 : 토라, 제국, 하느님의 나라 / 박상훈 신부
- 성경대학 :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3 / 송봉모 신부
- 꿈-하느님의 귀한 선물! / 홍기령 교수
- 단테〈신곡〉지옥편 : 배신과 우정 / 김산춘 신부
- 구약성경 아카데미 : 창세기 해설 / 주원준 박사
-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 최지원 수녀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문의 : (02)3276-7733, https://center.jesuit.kr/

제8기 자비의 선교사 학교
- 때 : 매월 셋째주 토 10:00~12:00 (3.15부터)
- 대상 : 평신도, 청년, 수도자, 사제
- 접수 : 3.1(토)까지 / 정원 : 15명
- 주최 : 하느님 자비 복음의 종 선교회
- 문의 : 010-3920-6912 (로랑스 선교사)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 곳 : 살레시오회 관구관
- 때 : 2.7(금)~9(주일)
- 대상 : 건강한 고1~35세 미만 남성
- 접수 : 1.31(금)까지
- 문의 : 010-6221-3520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 한라산눈꽃산행포함 : 1.17~19, 1.23~25 2.8~10, 2.14~16, 2.22~24
- 추자도포함성지순례 : 3.1~4, 3.9~12, 4.12~15
- 생태순례 : 3.17~19, 3.22~24, 3.28~30, 4.2~4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한라산눈꽃산행 : 2.7~9, 2.21~23, 2.25~27
- 자연순례 : 3.1~3, 3.8~10, 3.18~20, 3.29~31
- 추자도포함 : 3.13~16, 3.23~26, 4.5~8, 4.29~5.2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성소모임
- 대상 : 40세 미만 미혼여성으로 세상 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 카카오채널 :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 문의 : 0507-1306-150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1박 2일 : 2.14(금)~15(토), 3.8(토)~9(주일)
- 3박 4일 : 2.17(월)~21(금)(4박5일), 2.26(수)~3.1(토)
- 8박 9일 : 1.6(월)~14(화), 2.3(월)~11(화)(신학생, 일반)
- 40일 : 4.21(월)~5.30(금)
- 곳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가정사목부 프로그램 안내
- 신청 : 가정사목부 홈페이지 http://familia.djcatholic.or.kr
- 문의 : (042)256-5487~8

프로그램	때 · 곳	내용 / 대상
태아와 산모축복(영유아) 미사	1.15(수) 10:00, 세종성요한바오로2세성당 1.16(목) 10:00, 전민동성당 1.22(금) 10:00, 모산성당 1.24(금) 10:00, 천안용곡동성당	임산부, 영유아
제98차 선택주말	1.17(금) 19:00~19(주일) 17:00 (2박3일) 수리치골 성모성지	대상 : 미혼 남녀 젊은이, 성직자, 수도자, ME 수강부부 수강료 : 14만원

대전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입생 모집
● 모집 : 2월 6일(목), 17시까지 ● 면접 : 2월 7일(금), 접수자 개별 안내 ● 문의 : (044)861-7230

모집 과정	수업 일시		과목
교리신학원	1학년	매주 화 · 목, 14:00~17:10	• 신 · 구약 성경, 철학, 교회사, 기초신학, 영성생활 • 예수그리스도, 교리교육의 실제, 전례와 성사 • 교부학, 교회와 평신도, 가톨릭과 타종교
	2학년		
전례음악원	1학년		• 1학년 공통 과목 : 전례와 전례음악, 그레고리오 성가 • 선택 전공 : 합창지휘법, 오르간, 성악, 가톨릭 전례음악 (과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문의 요망)

홈페이지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80.5°C 총 모금 805,225,784원

[12.14~19 모금액] 6,158,020원
본당 2,137,400원 / 개인 · 기관 · 행사 4,020,620원

맑은눈 안과
노안, 백내장, 녹내장, 스마일라식, 라식, 라섹
T.(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미즈의원난임센터
산부인과 전문의 서영석(다미안)
산부인과 전문의 박상도(펠릭스)
탄방동673번지 T. (042)488-2255

공신한의원
산후질환, 난임, 소아보약,
피부질환, 과민성대장, 비염
최성훈(안드레아)
미즈여성병원 3층 T. (042)488-9595

미카엘여행사 국내·해외성지순례
2/6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확정)
2/18, 3/4, 4/1 제주도 성지순례, 3/11-13 전주광주 3일
4/23 성모님 발현지 4국 13일, 5/19 그리스, 트뤼키예 12일
정상훈 미카엘 T. 010-8650-9690

얕은 인간관계가 주는 깊은 행복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늘 해 오던 것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가급적 안 하려고 하니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도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짧은 대화라도 나누려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행동을 자제해야 하나 하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끼는 사람들의 진심어린 충고가 이러한 고민의 발단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런 행동은 괜한 오해를 불러 올 수도, 타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인들의 충고가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제 생각도 100% 옳은 것만도 아닐 수 있기에 사실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래, 굳이 안 해도 되는 인사나 말들을 건넬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영국의 한 심리학자의 흥미로운 실험을 다룬 신문 기사를 얼마 전 접하게 되면서 저의 이런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다시 한 번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길리언 샌드스트롬' 박사는 99명의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6일 동안 한쪽은 주로 친한 사람과 다른 한쪽은 주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실험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류한 사람들의 행복감과 사회적 소속감이 친한 사람들과 교류한 사람들의 행복감과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입니다.

"카페 직원, 직장 동료, 반려견을 키우는 이웃 등과 잡담하는 것이 가까운 친구, 가족과의 대화만큼 의미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다."라며 샌드스트롬 박사는 실험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실험결과에 더해 미국과 프랑스의 조사 자료를 통해 깊은 인간관계만 갖는 사람보다 얕은 관계까지 소중히 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신문기사는 소개했습니다.

'정(情)'이 많은 사회라던 우리 사회가 어느새 '정'마저도 '양극화'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인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가족과 친구에게는 더할 수 없이 다정해도, 낯선 이웃들과 생활 속에서 가끔 마주치게 되는 얕은 관계의 사람들에게는 찬바람 쌩쌩 부는 표정과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결심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야겠다고... 다정한 말 한마디, 온화한 미소 한 번 짓는 데 뭐 그리 복잡한 고민까지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살포시 열고 관계의 깊이를 떠나 서로가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그 간결한 사랑이 전부였음을 명심하며 새해를 시작해 보렵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 건양대교수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요나성당&연수원은 대천해수욕장에 자리잡고 있으며
교우분들의 쉼을 위한 객실을 운영합니다.
개인, 가족모임, 사목&레지오 단체 환영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모든 쉼을 축복합니다.

미사안내
토요주일미사 : 오후 5시
주일미사 : 오전 10시
화요일, 목요일 : 저녁 7시
수요일, 금요일 : 오전 10시

12인실 온돌형	1인용 매트리스 12개 비치
10인실 온돌형	1인용 매트리스 10개 비치
4인실 침대형	더블침대 2개 비치(1침대 2인 사용)
4인실 A 타입	더블침대 1개, 1인용 매트리스 2개 비치 (1침대 2인 사용, 2인 1인용 매트리스 사용)
4인실 B 타입	온돌형 1인용 매트리스 4개 비치
2인실	더블침대 1개 비치(1침대 2인 사용)

** 4인실 침대형, 2인실은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 예약 문의 : (041)934-7758
• 홈페이지 예약 : yonaresort.co.kr 또는 요나성당 검색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12월 24일(화)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봉헌하고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12월 24일(화) 대덕구 우암로 491번길 41에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늘품'을 방문해,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과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봉헌하고, 다과를 나누었다.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12월 25일(수) 관평동본당(주임 정우석 신부)를 방문해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를 봉헌하고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다.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12월 25일(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대전모이세'를 방문해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를 봉헌하고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이주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모이세 회원 7명에 대한 견진성사가 집전됐다.

2025년 정기 희년 개막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2025년 희년 개막미사가 12월 29일(주일) 교구장 김종수 주교 주례로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봉헌됐다.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와 세례식

원신흥동본당

신탄진본당 세례식

관저2동본당 세례식

공주교동본당 세례식

관저동본당 세례식

배방본당

공주신관동본당 세례식

온양풍기동본당 세례식

세종보 천막농성장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